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3. 8. 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52, 3849
보도일시		2018. 3. 8(목) 10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’, 해외 제작사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는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.
 -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('16.2)했으며,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.
 -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·부품사, 통신·IT사 등 국내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*에 대해 허가가 이루어졌다.
 - * 현대차(15), 기아차(2), 현대모비스(1), 만도(1), LG전자(1), 네이버랩스(1), 한양대(2), 카이스트(1), 교통안전공단(2), KT(2), 자동차부품研(1), 삼성전자(2), 쌍용차(1), 서울대(4), 전자통신研(2), 차세대융합기술研(1), SKT(1) 총 40대
-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('16.2~'18.2)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*하였으며,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게 되었다.
 - * 6개 기관 11대('16) → 17개 기관 30대('17) → 17개 기관 40대('18.2)

-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-City,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-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,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해외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하였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·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3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